『說文解字』 부속자에 의한 부수의 의미 확정 *

– 走部와 辵部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원철 **

1. 서론
2.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부수
   1) 부수의 의의
   2) 부수의 역할
3. 부속자를 통한 부수 의미의 확정
   1) 走部가 가지는 의미역
   2) 辵部가 가지는 의미역
   3) 동일한 성부를 취하는 글자에서 부수의 의미
4. 결론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설문해자』 부수(部首)의 부속자(附屬字)를 통해, 그 부수의 의미 영역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卷二에서 走部와 辵部를 중심으로 해당 부속자를 비교하여, 해당 부수의 본의(本義)와 파생의(派生義)를 상정할 것이고, 서로 동일한 성부(聲符)를 취한 각 부수의 부속자를 선택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각 부수의 부속자

* 본 논문은 2019년 6월 1일 한국중국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당시 토론자 및 참석자의 조언과 질정을 바탕으로 논문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이 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사업단 HK조교수 / E-mail: chimsky@gmail.com

의 배열은 해당 부수의 파생 관계와 의미 영역을 나타낸다. 성부(聲符)가 동일한 글자의 의미상의 차이는 즉 각 부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설문해자(說文解字)』, 부수(部首), 부속자(附屬字), 의미 영역, 성부(聲符), 주부(走部), 착부(辵部), 배열(排列)

1. 서론

본 논문은 『설문해자』(이하 『설문』이라 한다.)의 부수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는 부수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해당 부수에 속하는 부속자를 분석하여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문』의 부수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략하다. 본 논문에서 들고자 하는 走部와 辵部의 설명을 비교하여 예시로 들고자 한다. 走部는 『설문』 권2상에, 辵部는 권2하에 속한다. 해당 부수자에 대한 설명은 각각 다음과 같다.

> '走'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이다.(走, 趨也.)(『설문』 권2상 走部 '走'字)
>
> '辵'은 가다 서다 하는 것이다.(辵, 乍行乍止也.)(『설문』 권2하 辵部 '辵'字)[1]

1) 趙宗乙(2013), 33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오형(高亨)은 『문자형의학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辵을 의미 성분으로 사용하는 글자는 모두 달려나가는 의미를 취한다. 그렇다면 '辵'이라는 것은 가다〔行〕의 의미이지, 가다서다하는 의미가 아니다.'(『설문』 본문에서 언급한 "讀若『春秋公羊傳』'辵階而走'에 대해) '辵階而走'라는 것은, 지금 판본 『공양전·선공 6년』에서는 '躇階而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하휴 주에서 말하였다. '빠르게 서두르는 것과 같아서, 멈출 틈이 없다.' 당 육덕명의 『석문』에서 말하였다. '躇자는 다른 판본에서는 辵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辵'은 '超遽'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이는 빠르게 움직임을 말한다."(高亨『文字形義學概論』云 : "從辵之字, 皆取行走之義, 則辵者, 行也, 非乍行乍止也。" "辵階而走"者,

이 둘은 결국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빠르게, 하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도 '달리다'와 '걷다'의 차이를 구분할 때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다. 어느 시점이 달리는 것이고, 가다 서다 하는 상황을 구분해주어야 했을까? 또한 부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부수자에 대한 설명이지 해당 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부수를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수자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해당 부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고자 趙宗乙(2013)에서는 부수를 상세히 풀이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대표적인 글자를 제시하면서 분석한 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설문』의 부속자에 주목하였다. 염정삼(2016)에서는 『설문』 내의 부속자의 의미 파생 관계 등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원용하여 부수의 의미역을 설정하고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수 사이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부수 사이에서 성부를 공유하는 글자가 있다.[2] 단어의 의미는 해당 발음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3], 성부를 같이 쓴다는 것은 그 해당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다. 부수는 이때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먼저 부수

今本『公羊傳・宣公六年』作"躇階而走", 何休注："猶超遽, 不暇以次。"唐・陸德明『釋文』云："躇, 一本作𧾷。"是"𧾷"又有"超遽"義, 謂行之疾也。)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면 '𧾷'의 『설문』에서의 풀이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의 논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히려 '走'와 '𧾷'의 설명이 차이가 없는 편이 해당 부속자를 비교하여 의미적 차이를 찾아내야 하는 당위성이 형성되므로 더욱 설명에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래의 형태를 찾고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의 주제로 남겨두고 여기에 참고 사항으로 기재하고자 한다.

2) 走部와 𧾷部 사이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세한 목록은 3.3을 참조할 것.

3) 이러한 방식을 인성구의라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신원철(2014) 제2장 참조.

가 가지는 의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부수가 어떻게 존재하고 허신의 입장에서 이들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부속자 중에서 '走'와 '辵'를 들어 그 속에서의 의미의 분포를 확인하여 각 글자의 의미역을 확정할 것이다. 또한 走部와 辵部 사이에 성부를 공유하는 글자를 비교하여 각자의 역할 또는 성부 공유의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 한자에 있어 중요한 의미 전달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부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부수

1) 부수의 의의

『설문』의 부수에 대한 정의로는 염정삼(2007)에서 상세히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면서 중국에서의 연구 성과 등을 들어 그 정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염정삼(2007)에서는『설문·서』를 인용하여 부수를 설명하였다.

> 『설문』서에서는 부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수를 세울 때는 '一'을 단초로 하여 방소는 類로서 모으고 만물은 群으로 나누었다. 동일한 조항은 연결되도록 하고 상관하는 이치가 전체를 꿰뚫게 하였다. 서로 다 함께 섞여 있으나 이치를 벗어나지 않게 하였고 자형에 근거하여 연관되도록 하였으며 의미의 확장과 발전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窮究하였다. 마지막으로 '亥'에서 끝을 맺어 오묘한 변화를 다 알 수 있게 하였다.(其建首也, 立一爲耑. 方以類聚, 物以群分. 同條牽屬,共理相貫. 雜而不越, 據形系聯, 引而申之, 以究萬原. 畢終於亥, 知化窮冥.)[4]

이와 같은 부수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부수는 '類'와 '群'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둘 다 '무리'를 나타내는 '類'와 '群'은 다수의 사물이나 현상 등에 특징을 부여하여 뭉치는 것을 가리킨다.[5] 이와 같은 분류의 기준점으로서 부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수는 해당 글자의 의미를 담당한다.[6] 이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으로는 육서 중 회의자에 대한 것이다. 회의자는 의미가 합쳐서 만들어진 자이다. 이들은 모두 의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해당 의미가 속한 글자에는 모두 수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信'은 '從人從言'으로 구성되어 人部나 言部에 모두 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설문』에서 '信'자를 찾으면 卷三上 言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왕균은 『설문석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허신이 문자를 배열할 때에, 형성자는 반드시 의미적으로 속하는 형태에 부속되도록 하였다. 이는 의미를 주로 한 것이다. 회의자는 두 가지의 의미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로 의미를 가지는 것과 종속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부수로 부속하였다. 이것은 통례이다.(許君之列文也, 形聲字必隸所從之形, 以義爲主也。會意字雖兩從, 而意必有主從, 則必人主意一部, 此通例也。)[7]

이는 해당 글자의 주요한 의미를 통해 하나의 부수에 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점에 착안하여 왕균은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

---

4) 염정삼(2007)에서 재인용.
5) 『설문』에서 '類'는 "種類相似, 唯犬爲甚。"으로, '群'은 "輩也。"로 풀이하였다. 모두 '무리'를 나타내고, 유사한 것끼리 묶어냄을 가리킨다.
6) 이를 『설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從某'이다.
7) 『說文釋例』 卷一, p.15, 黃天樹(2014), 152-153면에서 재인용, 번역은 발표자가 덧붙인 것이다.

다. 필자는 왕균의 설명 중에서 '主從'의 개념으로 풀이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한 의미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꿀 때 기준으로 삼을 내용은 바로 '類'와 '群' 부분이다. 즉 '무리'에 속할 만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부가 부수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2) 부수의 역할

앞에서 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분류의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는 실상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점에서 좀 더 나아가 부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부수를 분류의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면 이는 글자에서 부수를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단 허신의 의도는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요소가 있다. 특히 부속자를 가지지 않는 부수가 36개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8]

그렇지만 부수가 성립되어 체제로 쓰인 상황을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는 또한 부수의 역할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허신이 540부를 세워 이를 기준으로 『설문』을 편찬하였다. 그렇지만 부수로 묶는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주』, 『창힐』, 『원력』, 『박학』 등 옛날 글자 학습서에서 나타나는 집자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창힐』에서는 '江漢澮汾, 河溏池

8) 黃天樹(2014), 151면에서 그 목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속자 없는 부수(이를 '空立的部首'라 하였다.)에 대해 1. 의미나 다양한 이유로 다른 부수에 편입시킬 수 없는 것, 2. 다른 글자가 만들어질 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한 것 등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漳', "蘿藜蔪葉, 薺芥菜荏" 등 네 자씩 글자를 묶었는데, 의미상으로 유사한 글자를 모으면서 그 구성요소인 '水'나 '艸'를 기준으로 묶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9]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설문』에서 해당 글자들을 "각각 부수에 속하면서 서로 섞이어 놓이지 않았다.(分別部居, 不相雜廁也.)"를 실현하면서, 이후 부속자들을 '各得其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부수 성립의 배경에서 한 가지 부수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부각되는 것이 '의미의 확정'이다. 즉 다양한 성부로 표시하는 음에 대해 그 의미를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들었던 『창힐』의 예문들도 그 해당 음만으로는 음이 주는 다양한 의미 속에서 확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문자로 표시할 때 해당 발음뿐만 아니라 그 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중 어느 '무리'에 귀속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역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構詞法'에서 부수의 역할을 찾아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설문』에서의 부수는 형태적 측면에서 그 의미적 분류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3. 부속자를 통한 부수 의미의 확정

2장에서 부수에 대해 정의하고, 그 역할을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초 하에서, 부수자의 정확한 의미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는 부속자의 의미를 추리고 의미간의 상관관계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염정삼(2016)에서 '口'部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

9) 자세한 내용은 黃天樹(2014), 68-9면 설명 참조.

었다. 이를 통해 '象'으로 표현되는 의미 내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화하였는지를 밝혔다. 이때 나왔던 큰 결론 중 하나는 본의에 가까운 글자에서 파생된 의미 순으로 배치되고, 그 사이에 연결이 되는 글자가 있다는 것이다.[10]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원용하여 走部와 辵部의 부속자를 분류, 파악한 후에 이를 통해 부수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확정짓고자 한다. 아울러 동일한 성부를 사용하지만 각각의 부수에 나뉘어 있는 자를 살펴 이들이 나뉘게 된 연유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1) 走部가 가지는 의미역

走자를 부수로 하는 글자는 부수자를 포함하여 총 84자이다. 이들의 의미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 본래 의미(走~赴) → 추상화와 동작의 분화, 부수적 행동(趣~趯)→ 모습의 묘사(趙~趨) → 행동의 의도(趨~趯) → 다양한 상황, 추상적 연면사(趨~赶)

趙宗乙(2013) 28-29면에서는 走部의 부속자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1. 진행 중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을 드러낸다.(突出進行中步伐疾速的特點。) 2. 뛸 때 뛰어오르는 특징을 드러낸다.(突出跑動中騰空跳躍的特點。) 3. 뛰어 움직일 때 가벼우면서도 힘 있는 특징을 드러낸다.(突出其跑動時輕勁有力的特點。) 4. 기타 움직이는 것과 관련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表示其他與行走相關的意義。) 앞에서의 분석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부속자로 파악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은 경향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10) 염정삼(2016) 110-117면 표 참조.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허신이 글자를 배치함에 있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부수가 가지는 의미의 파생 정도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직접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에서 행동의 묘사나 부수적인 상황 등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이 중 추상화, 동작의 분화, 부수적 행동 등으로 묶인 부분은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글자의 배열에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네 번째 글자인 '趣'이다. 이 글자는 뒤에 나올 '趮'자와 더불어 모습의 묘사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의미 분포 분석과 趙宗乙(2013)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走部가 포함하는 의미역은 다음과 같다.

> 달리다. → 달리는 행동에서 구분적,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뛰다, 넘다, 건너다. → 달리는 모습에 대한 묘사. → 달리고자 하는 의도 → 그 외의 다양한 상황 및 추상적 의미의 연면사

2) 辵部가 가지는 의미역

辵자를 부수로 하는 글자는 부수자를 포함하여 총 130자이다. 이들의 의미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 가다 서다(辵(迹)) → 이동의 구체적 정황(遽~遘) → 이동 중 나타나는 부수적 행동(巡~遄) →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이동(速~遰) → 이동의 묘사(遛) → 이동에서 상상 가능한 다양한 행동(遷~迂) → 이동과 관련한 부수적인 요소, 추상적 의미의 연면사(逮~遙)

趙宗乙(2013) 33-34면에서는 辵部의 부속자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1. 일반적인 각각의 특색을 가진 이동을 나타낸다.(表示一般的各具特點的行走。) 2. 이동의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表示行走的不同狀貌。) 3. 앞으로 이동함을 나타낸다.(表示向前行走。) 4. 서로 만남을 가리킨다.(表示對面相遇。) 5.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表示返回原地。) 6. 도망을 나타낸다.(表示逃亡。) 7. 이동 속도를 나타낸다.(表示行走速度。) 8.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낸다.(表示行走的距離。) 9. 기타.(其他。) 이 부분에서는 상세하게 분석을 하였는데,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5.에서는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속에 속하는 '選', '送' 등은 돌아오는 의미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辵部의 의미 중에는 彳部와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겹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11] 이러한 점 때문에 예변하여 彳部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徒'자는 『설문』에서는 '辻'로 辵部에 속하지만 예변하여 '徒'가 되었다.[12] 이 '徒'에 대해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는 彳部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허신의 의미 배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走部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 이미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동작에서 출발하여 부수적인 행동과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파생 행동, 부수적인 요소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 중에 그 위치에 문제가 되는 것은 '遝'자이다.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은 走部에서도 확인했듯이 의도, 상황보다는 앞서서 나오는 것을 볼

11) 그 외에도 廴, 延, 行 등도 이동이라는 의미로 겹치고 공유한다. 이들은 모두 『설문』 卷二下에 포함되어 있다.
12) 段注 : "辻隸變作徒。" 段玉裁(1981) 70면 참조.

수 있다.[13] 그렇다면 이동의 모습과 관련된 자로는 '辿', '逶迤' 등과 함께 현재의 위치나 혹은 '迂'자 뒤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의미 분포 분석과 趙宗乙(2013)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辵部가 포함하는 의미역은 다음과 같다.

> 가다 서다 → 이동의 구체적 정황 → 이동 중 나타나는 부수적 행동 →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이동 → 이동에서 상상 가능한 다양한 행동 → 이동의 묘사 → 이동과 관련한 부수적인 요소, 추상적 의미의 연면사

앞의 절과 합치하여 보면 부수 내의 부속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본래의 의미를 전반부에 배치하고 이후 파생된 의미를 배치하여 의미상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두 부수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설문』의 부속자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배치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走部를 통해서는 달리는 행동과 그 행동에서 파생된 내용뿐만 아니라 달리고자 하는 의도만을 내세우는 것도 그 부수 속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辵部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 설명을 더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辵部에서 다루고 있는 이동의 문제가 좀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의도[意]'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셋째, 첫째에서 이야기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삽입되었거나 순서에 일치를 주지 못하는 부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논에서도 이러한 원칙 하에 순서에 변동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이 의미역이 다른 두

13) 이러한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수 내 부속자의 배열을 분석해야 한다. 이는 추후에 추가하도록 하겠다.

글자 사이에 동일한 성부를 취하는 글자를 통해 해당 부수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3) 동일한 성부를 취하는 글자에서 부수의 의미

앞 두 절에서 이미 두 부수 내의 의미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의미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이에서 의미가 유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파생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동일한 성부를 취하고 있는 글자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동일한 성부를 취하는 走部와 辵部의 글자는 다음과 같다.

연번	走部	훈석	발음	辵部	훈석	발음	공통성부
1	超	跳也	敕宵切	迢	迢, 遰也	徒聊切	召
2	越	度也	王伐切	逾	踰也	王伐切	戉
3	趜	趜趜也	七雀切	遣	迹遣也	倉各切	昔
4	趫	走意	布賢切	遾	行垂崖也	布賢切	梟(鴞)
5	趨	趜趨也	居謁切	遏	微止也	烏割切	曷
6	趨	疾也	況袁切	還	復也	戶關切	睘
7	趁	直行也	魚訖切	迄	至也	許訖切	气
8	趧	趨也	都禮切	迣	怒不進也	都禮切	氐
9	趍	趍趙,久也	直离切	迤	遷徙也	弋支切	多
10	趙	趍趙也	治小切	逍	逍遙也	相邀切	肖
11	趕	行難也	丘堇切	近	附也	渠遴切	斤
12	趠	遠也	敕角切	逴	遠也	敕角切	卓
13	趫	狂走也	余律切	遹	回避也	余律切	矞
14	趄	趑趄也	七余切	迡	往也. 齊語	全徒切	且
15	趡	趯趡也	力玉切	逐	行謹也	盧谷切	彖

16	趛	行趛趛也	七倫切	逡	復也	七倫切	夋
17	趮	趮鷩也	直离切	遞	更易也	特計切	虒
18	趙	喪辟趙	余隴切	通	達也	他紅切	甬
19	趒	雀行也	徒遼切	逃	亾也	徒刀切	兆
20	赶	擧尾走也	巨言切	迂	進也	古寒切	干

이때 발음을 기준으로 그 같고 다름을 통해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인성구의에 입각한 접근으로 의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그 발음 속에 있음에서 착안한 것이다.

발음이 동일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번	走部	훈석	발음	辵部	훈석	발음	공통성부
2	越	度也	王伐切	逾	踰也	王伐切	戉
4	趫	走意	布賢切	遾	行垂崖也	布賢切	梟(梟)
8	趄	趨也	都禮切	迤	怒不進也	都禮切	氐
12	趠	遠也	敕角切	逴	遠也	敕角切	卓
16	趛	行趛趛也	七倫切	逡	復也	七倫切	夋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통할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12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두고 있다. 12번도 다음자로 의미적 분화가 가능하겠지만 『설문』에서 '逴'에 대해 "讀若棹茗之棹"로 음을 확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 발음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해당 발음의 글자가 쓰이는 환경이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走部와 辵部 각각 부수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음이 다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번	走部	훈석	발음	辵部	훈석	발음	공통성부
1	超	跳也	敕宵切	迢	迢, 遰也	徒聊切	召
3	趞	趞趞也	七雀切	遣	迹遣也	倉各切	昔
5	趨	趞趨也	居謁切	遏	微止也	烏割切	曷
6	趮	疾也	況袁切	還	復也	戶關切	睘
7	趌	直行也	魚訖切	迄	至也	許訖切	气
9	趍	趍趙,久也	直离切	迻	遷徙也	弋支切	多
10	趙	趍趙也	治小切	逍	逍遙也	相邀切	肖
11	趕	行難也	丘堇切	近	附也	渠遴切	斤
13	趫	狂走也	余律切	遹	回避也	余律切	矞
14	趄	趍趄也	七余切	迡	往也.齊語	全徒切	且
15	趡	趯趡也	力玉切	逐	行謹也	盧谷切	彔
17	趫	趫騫也	直离切	遞	更易也	特計切	虒
18	趙	喪辟趙	余隴切	通	達也	他紅切	甬
19	趒	雀行也	徒遼切	逃	亾也	徒刀切	兆
20	赶	擧尾走也	巨言切	迁	進也	古寒切	干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같은 성부를 사용하지만 발음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따라서 의미적으로는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동일한 성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성부가 나타낼 수 있는 음은 하나의 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의 성부로 쓰인 '召'는 『광운』 기준으로 '直照切'과 '寔照切'로 구분된다. 이러한 성부를 사용한 글자 또한 각각 다른 발음을 나타내면서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설문』부속자를 통해 부수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走部와 辵部를 비교하면서 그 의미역을 살펴보고 동일한 성부를 사용하는 글자를 통해 각 부수의 의미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부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부수는 '類'와 '群'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부수가 발생한 상황으로는 집자를 한 이전의 학습서에서 착안하여 허신이 이를 의미 분류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았다. 역할로서는 분류뿐만 아니라 '의미의 확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走部와 辵部의 부속자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면서 부수 내에서 이를 대분류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파생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走部와 辵部의 부속자는 이러한 점에서 충실하게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기준 내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또한 두 부수 사이에서 동일한 성부를 공유하는 글자들을 추출하여 발음을 기준으로 동일한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발음이 동일한 것은 부수의 의미에 맞추어 둘 사이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한 점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발음이 다른 것은 하나의 성부가 다음자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음을 통해 의미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부속자를 통해 부수의 의미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3장의 두 절에서 走部와 辵部의 의미 파생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走部와 辵部의 의미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본의와 파생의가 부속자의 범위 내에서 배치되고, 그 배치된 의미가 즉 각 부수의 의미역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나머지 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자의 본의

와 파생의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段玉裁(1981),『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연구논저〉
신원철 (2014),『『경전석사』에 나타난 인성구의 연구』, 역락.
염정삼(2007),『『설문』 부수자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2016),「유(類)와 상(象)을 통한 문자의미의 생성과 분화 -『설문』 구(口) 부를 예증으로」,『중국어문학지』 54집.
趙宗乙(2013),『『說文解字』部首詳解』, 黑龍江人民出版社.
黃天樹(2014),『說文解字通論』, 北京大學出版社.

Abstract

Determining the Meaning of Radicals in Chinese Character by Way of Subsidiary Characters in『Shuowenjiezi說文解字』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Zou走 Part and Chuo辵 Part

Shin, Wonchul*

This thesis aims to determine the meaning of radicals in Chinese character by way of subsidiary characters in『Shuowenjiezi說文解字』.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ison between Zou走 and Chuo辵 parts in『Shuowenjiezi說文解字』. Through this research, the original and derived meanings of Zou走 and Chuo辵 parts will be assumed. Subsidiary characters which have the same phonetic component in the Zou走 and Chuo辵 parts were selected and clarified the difference among them.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The arrangement of subsidiary characters in each radical shows the derivation relation and semantic fields of the radical. The difference of meaning in subsidiary characters which have the same phonetic component can be understood as a feature of each radical.

Key Words

『Shuowenjiezi說文解字』, radicals in Chinese character, subsidiary characters, semantic fields, phonetic component, Zou走 part, Chuo辵 part, arrangement

논문접수일: 2022. 1. 20, 심사완료일: 2022. 6. 28, 게재확정일: 2022. 6. 30

* 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Theology HK+ Project HK assistant professor / E-mail: chimsky@gmail.com